

다원주의 관점에서 본, 후기 근대 교육의 목적: 경제적 인간상/국가를 위한 인재상을 넘어, ‘행복한 생활인’으로

구은정*

본 연구는, 급격한 사회변동이 진행되고 있는 후기 근대사회 한국에서, 필요한 인재상과 교육 방향에 대한 논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후기 근대사회에서 사회변동을 일으키는 또 다른 중요한 축인 ‘돌봄’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는 점, 사회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교육이란 도구주의적 관점에 대해 비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돌봄 논의를 교육목적과 관련된 논의에 융합하고,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세대 개개인의 삶을 위한 교육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전통적 서양철학의 이원론에 뿌리를 둔 자기 이익 실현에 몰입하는 자아상, 즉 경제적 인간이란 인간상을 넘어,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관계적 자아’, 즉 ‘우리’ 안에 정주(定住)하는 ‘나’를 논의한다. 둘째, 돌봄에 대해 배려윤리를 초점으로 도덕·윤리교육의 일면으로만 바라보는 제한적 논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향유하는 돌봄 가치에 대한 논의로 초점을 옮긴다. 셋째, 기술발전에 초점을 두는 경제적 일원론이 아닌 다원주의 관점을 도입해, 후기 근대 교육의 목적은, “경제적 삶을 꾸리는 자유인으로, 돌봄을 나누는 가족·이웃으로, 더 나은 사회 틀을 짜기 위해 참여하는 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생활인을 키우는 것임을 제안한다.

Ⅰ 주제어 Ⅰ

교육의 목적, 돌봄 가치, 관계적 자아, 행복한 생활인, 다원주의

* 단독저자,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조교수

1. 문제 제기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변화에만 초점을 둔 교육 변화 논의의 한계를 비판하며, 후기 근대사회라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주목해 돌봄을 교육과 관련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목적¹⁾을 재고하려는 시론적 고찰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²⁾ 초-연결(hyper-connectivity) 초-지능(hyper-intelligence),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의 용어로 상징되는 기술공학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의 변화, 이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김경근 2019, 2020; 김민수, 2019; 김은비 외, 2020; 신현석 외, 2019; 양홍권, 2018; 이경호, 2019; 이영희 외, 2018). 기술발전으로 사회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수많은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사라지면서, 과거 대략 15여 년 교육의 결과로 평생 일 자리를 얻고 생활을 영위했던 삶은, 더는 보편적 삶의 경로가 되지 못한다. 때문에,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도 대응하고, 전 생애 몇 차례 새로운 일을 구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교육이 해내야 할 시대적 과업으로 등장했다(이경호, 2019: 14). 기술 발전,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동으로 개인이 습득해야 할 경제적 능력의 범주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학교 교육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논의를 살펴보면, 선별과 변별에 경도되어 학업성취 결과를 기준으로 일렬로 줄 세우는 한국 교육의 폐해는 자명하고(김경근, 2020: 3-7), 국

1) 학교 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 다양한 범주에서 구체적인 교육의 목적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변화와 교육의 변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학교 교육을 초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돌봄을 공적영역의 가치로 주목한다는 점에서, 이 글은 학교 교육을 범주로 한정한다.

2) 제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사용되었다(양홍권, 2018: 37).

민의 절반은 한국 교육으로 4차 산업 사회에 걸맞은 인재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이경호, 2019: 144). 기존 한국 교육이 과거 저발전의 한국사회를 급속히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미 있던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는 추격형 인재를 키워왔지만,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기존 방식은 유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격형 인재가 아닌 선도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김경근, 2019), 융합·창의·공감·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정책과 교육방향(김은비 외, 2020; 이영희 외, 2018), 어린이 철학교육(김민수, 2019), 교육과제(이경호, 2019)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2016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한 '4.16 교육체제'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우선하는 교육 방향을 제시해 기존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신현석 외, 2019: 57-58).

그러나 이런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더 행복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는 지속되는 화두이고, 학업성취를 수치로 환산해 선별하는 방식이 공정하다는 굳건한 믿음, 즉 경험 세계에 여전히 뿌리 깊은 기존 교육 패러다임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단, 우리나라 교육이 지나치게 수단적 가치만을 중시하고 본래적 가치를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이고(양홍권, 2018: 43), 수월성의 법칙보다 다양성의 법칙이 담보되어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고(김경근, 2020) 제안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논의들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3) 행복은 이 글에서 일상적 언어로 쓰였다. 행복에 대한 철학적 인문학적 고찰은 연구자의 능력을 벗어나고, 무엇보다 불필요하다. 이 글에서 행복은 교육의 도구적 목적에 강제되는 개인이 아니라, 뒤에 논의될 다양한 가치의 조화를 위한 타협에서 자율성 주체성의 보장을 의미한다.

가령, 대학이 선발과 변별에 매몰된 풍토에서 자신의 이익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상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험을 하기 어렵다는(김경근, 2020: 9) 지적은 타당하지만, 교육 관련 연구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었던 근대 경제학에서 내세우는 ‘경제적 인간’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찾아보긴 어렵다.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적 인간’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면, 개인적 수준에서,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선발과 변별에서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생존전략일 수 있다. 국가적 수준에서, 추격형 인재가 아닌 선도형 인재를 키워 기술 변화 상황에서 남들보다 앞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존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한다는 것의 의미는 ‘국가의 번영을 위해 이바지할 인재를 키우기’ 위한 전술적 변화일 뿐이다. 교육에 대한 도구주의적 관점은 변하지 않았고, 국가의 이익을 우선⁴⁾하던 습속도 여전하다.

사실 사회는 급변하는데, 인재에 대한 논의는 과거 봉건공동체 사회의 인재상인 영웅 서사에(Taylor, 1989) 머무르는 것처럼 여겨진다. 교육이 키워내야 할 인재로 학식·능력·인품이 남달리 뛰어난 사람, 미래 사회를 이끌 조직의 리더 등으로 규정하고, 교육의 목적을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 육성으로 꼽는다(김은비 외, 2020: 7; 이경호, 2019: 147). 그러나 모든 학생이 “남달리 뛰어난 사람”, “리더”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위한 삶은 근대 국가 형성 이전, 봉건사회 전쟁영웅 서사에서 흔한 이야기다. 과거 봉건공동체 사회에서 개인은 주어진 공동체를 벗어나 생존할 수 없었고, 공동체들 사이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기,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개인의 생존을

4) 국가주의적·전체주의적 교육 이념을 담았던 것으로 비판받아온 1968년 공포된 국민교육헌장이 1993년 교과서에서 삭제되고 과거의 유물로 사라졌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에 대한 논의에서 국가주의적 습속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의 삶을 위한 교육이란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공동체를 지켜내는 영웅은 그 시대 인재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근대의 출현은 곧 ‘개인적 자아’의 출현이고(Taylor, 1989), 지금은 개인이 타인뿐 아니라 기계와 경쟁 또는 공존하고 심지어 융합되는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이 이야기되는 시대다(소경희 외, 2020). 무엇보다, 돌봄 위기는 후기 근대사회의 화두가 되었다. 돌봄 위기에 대한 초기 논의는 기존에 돌봄을 제공했던 여성이 직업을 갖게 되면서 생겨난 돌봄 공백을 포착해 돌봄(노동)의 배분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돌봄은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하는 노동을 넘어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활동이다(Himmelweit, 2007: 583; Koo, 2021). 그리고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애정·사랑·연결(connectedness) 등 긍정적 감정을 느끼며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해진다(Fredrickson, 2013). 이런 논의를 고려할 때, 돌봄 위기는 개인이 겪는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2020년 코로나19로 사망한 학생은 없지만, 자살로 사망한 학생은 140명에 이른다(박상훈, 2021.4.28.).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0대와 20대의 자살 시도는 70% 증가했고(강도훈, 2020.9.15.),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 삶 만족도 꼴찌 등은 해마다 뉴스에 오르내린다. OECD 국가 평균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월등히 높은 한국의 자살률은, 2001년 이후 다른 국가들은 감소하는 반면, 꾸준히 증가했다(통계청, 2021: 36-37). 한국이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2000년대 이후, 역설적으로 낮은 삶 만족도, 우울, 외로움, 자살 등은 개인의 일상을 파고들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적 시장 논리에 돌봄이 잠식되고 삶이 위태로운 후기 근대(홍찬숙, 2013: 262-265), 여전히 (국가)공동체를 위한 개인을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어야 할까?

정리하자면, 기존 패러다임이 뿌리내리고 있는 인간상과 인재상은 비판적으로 재고찰되지 않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뿌리내릴 이론적 토양이 마련되지 못했다. 결국 공동체를 위해 복무하는 봉건사회 인재상을 교육 목표로,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근대적 인간에게, 후기 근대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을 교육하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논의들이 얹혀있다. 이런 혼란스러움은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전근대·근대·후기근대가 함께 존재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강정인, 2012)이라는 한국사회의 특이점이 더해져 더 격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한편, 경제·정치·사회를 분과학문으로 나누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대립 속에서 근대사회가 형성 발전되어왔던 경로에도 기인한다. 그리고 근대를 떠받쳤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두 사상 어디에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배려하고 돌보는, 개인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때 필수적인 인격 형성과 관련된 돌봄 사상이 부재하다는(구은정, 2020)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과 관련해 돌봄은 배려윤리란 내용으로 주로 도덕·윤리교육과 관련해(김수동, 2002; 조성민, 2012), 또는 유아교육과 관련해(김은주·이상수, 2005; 염지숙·오채선, 2010)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 돌봄 위기의 문제는 철학적 또는 보육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현대인의 외로움,⁵⁾ 일과 삶의 균형(구은정, 2019b), 저출산·고령화(구은정, 2019a), 젠더 갈등(Ryu & Kim, 2019), 이주 노동(Parreñas, 2001), 돌봄 정의(Engster, 2007) 등 다양한 삶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렇듯 돌봄은, 후기 근대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미래세대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

5) 2018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영국에서 외로움위원회(The Commission of Loneliness)를 설치하고 외로움장관(The minister of loneliness)을 임명한 사례는(정건희, 2018.1.17.),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외로움이 얼마나 큰 사회문제가 되었는지를 상징한다. 일본에서 먼저 사회문제가 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늘고 있는 ‘은둔형 외토리’ 문제도, 거칠게 얘기하면 결국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에,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임이 분명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이 융합, 창의, 공감, 문제해결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김민수, 2019; 김은비 외, 2020; 이경호, 2019; 이영희 외, 2018) 논의에 동의하지만, ‘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얽혀지는 풍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기 이익만을 우선하는 “경제적 인간”이라면, 타인에 대한 공감 역량은 미흡할 수 있다.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은 목적에 복무해야 한다면,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기했던, 경제적 일원론에 매몰된 인간상과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을 우선하는 교육의 도구주의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자유·정의·돌봄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는 개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통적 서양철학의 이원론에 뿌리를 둔, 근대 경제학에서 내세우는 인간상인 자기 이익 실현을 우선하는 “경제적 인간”에 대한 논의를 비판하고,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관계적 자아’, 즉 ‘우리’ 안에 정주(定住)하는 ‘나’를 논의한다. 둘째, 돌봄 수행, 돌봄 가치, 돌봄 윤리를 구분하고, 돌봄 가치를 체험하는 삶 속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돌봄 윤리를 실천하게 됨을 논의한다. 셋째, 다원주의 관점에서, 근대 교육의 목적은, “경제적 삶을 꾸리는 자유인으로, 돌봄과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웃으로, 더 나은 사회 틀을 짜기 위해 참여하는 시민으로(구은정, 2019: 176-177)”, 자유·돌봄·정의의 가치를 향유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생활인”을 키우는 것임을 논의한다.

II. ‘우리’ 안에 정주(定住)하는 ‘나’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Smith, 2003)의 첫째, 자기 이

익을 우선하는 개인의 이기심이 인간 행위의 동기이고, 둘째, 이런 행위들이 산출하는 생산물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당된다는 두 가지 주장은, 현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기저를 이룬다. 이 두 가지 중, 현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방임주의가 전제하는 완전경쟁시장이 존재할 수 없고, 경험 세계에서 벌어진 ‘시장의 실패’로,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의 타당성은 ‘정부의 실패’와 맞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라 여기는 생각은 현대사회, 특히 경쟁사회인 한국사회에서 더욱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내적동기가 사회발전의 동력이란 관점은, 전근대 봉건 신분제 사회에서 주어진 집단적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개인이 근대적 주체가 되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 과정과(Banks & Milestone, 2011: 75) 같은 맥락이다. 삶의 목적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권리로 획득하고(성현창, 2013: 13), 동등한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사회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한다(이선미, 2008: 116-117). 최근 ‘개취존(개인취향존중)’⁶이라는 신조어는 후기 근대사회 개인화의 상징으로, 욕구가 당위 보다 우선됨을 함축한다. 즉, 개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도덕적 이타심보다, 솔직하게 욕구를 인정하고 이기심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애초 애덤 스미스의 두 가지 주장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기심의 발현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처럼 후자가 논란이 된다면 전자의 타당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애덤 스미스가 국가의 부를 키워 모두를 잘살게 하는 것을 경제학의 역할로 보았듯이, 국가(공동체)의 부는 개개인 삶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규정한다. 가령, 경제적으로 부유한 북유럽 국가의 중산층과 가난한

6) ‘개취존’이란 용어는 2020년 최신 트렌드 서적에서 감정 노동을 거부하고 자신의 취향을 존중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세태를 뜻하는 어휘로 소개되었다(박수호, 2020.1.10.).

나라의 중산층은 물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 다시 말해,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개인의 행위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상보할 때, 그 사회의 발전을 도출하고 개개인에게도 이익으로 되돌아간다. 사실 전통적 서양철학에서 기인하는 이기심과 이타심을 맞서는 것으로 여기는 이원론적 관점은, 봉건사회 권력관계를 지탱했던 관점으로 (Larry, et al., 1973),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사회 철학과 모순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지속된 이기심과 이타심,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이 진자운동을 멈추고,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첫째, 여성주의 관점을 활용해, 서양철학의 전통적 이원론이 결국 봉건공동체 사회 권력관계를 옹호하는 관점이었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우리’안에 정주하는 개인을 (사회)심리학,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이타심과 이기심의 대립을 해체할 것이다.

1. 서양철학의 이원론 – 권력관계의 기제

서양철학의 이원론은 봉건사회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을, 즉 당시 권력관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었다. 여성/사적영역/감정/이타심/자연 등의 범주는 남성/공적영역/이성/이기심/정치 등의 범주와 구분되며(Van Staveren, 2001), 후자가 전자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여겨졌다. 여성이 지닌 죄의식, 공포, 그리고 낮은 자존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여성의 이타적 기질은 평가절하 되었고(Larry, et al., 1973), 공적영역에서 작업(work)하고 행위(action)하는 남성은 사적영역에서 노동(labor)하는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졌다(Arendt, 1998). 같은 맥락에서, 몸의 영역에 존재하는 감성이 아니라 정신인 이성만이 진리를 포착할 수 있고(장경주·김미숙, 2019: 270), 따라서 이성적 존재인 남성만이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고 여겼다. 이렇게 서양철학의 전통적 이원론은 봉건사회의 권력관계를 지탱하는 사상적 기반이었다.

전통적 이원론은 근대 형성 시기, 남성만을 근대의 주체로 호명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었다. 이성적 존재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증진하는 근대 개인화 과정에서(신경아, 2013), 사적영역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은 여전히 주어진 공동체의 정체성에 묶여, 개인으로서 근대적 자아를 획득하지 못한다(Jaquette, 1982). 직업 정체성이 사회적 정체성과 동일시 되는 근대사회에서(Ardichvili & Kuchinke, 2009: 158-160), 사적영역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들은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사회 직업을 통해 얻는 수입이 물질적 삶의 기초가 되면서, 무급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아내)은 직업을 가진 남성(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다(Koo, 2019). 따라서 이타심으로 가족을 돌보기보다, 이기심을 바탕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직업을 획득하는 것은 여성주의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다시 말해, 기존에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공적영역에 진출하는 것, 즉 남성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초기 여성주의자들의 목표였다. 집안일로 치부되었던 여성들이 집에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하던 일을 ‘가사노동’으로 재개념화해 여성을 (유사)노동계급의 일원으로 규정하거나(Seccombe, 1974), 가사노동에 임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던 이탈리아 여성주의 운동(Bracke, 2013),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가 이를 설명한다. 이때 여성들이 활발하게 직업을 갖는 것만큼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담당하지 않으면서(Gerson, 2002), 돌봄 위기, 일과 삶의 균형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한다(구은정, 2019b). 다시 말해, 여성과 남성 모두 이기심에 기반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선택이 젠더 평등을 이루는 경로였지만, 이타심에 기반하는 돌봄영역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는 도덕적 딜레마를 낳았다(Gerson, 2002).

이는 앞서 이기심에 기반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들이 결국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애덤 스미스의 논의가 타

당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후기 근대사회 돌봄 위기는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연결되어, 한 학자는 한국 사회 자체의 소멸을 통계적으로 예측하기도 했다(Coleman, 2002). 결국 사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 양성이란 교육의 도구주의적 목적에도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적 인간”이라는 근대적 인간상은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듯 후기 근대사회, 남성과 여성 모두 이기심에 기반해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결과로 나타난 돌봄 위기는 이기심과 이타심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고 “경제적 인간”을 제시했던 근대 경제학적 관점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한다. 따라서 후기 근대 사회변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의 목표인 전인적 인간이 어떤 인간상을 의미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2. ‘관계적 자아’- 이기심과 이타심의 통합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적 인간”이란 일원론적 관점과 다른, 개인은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관계적 자아’에 대한 관점은, 심리학, 사회심리학, 행동경제학 등 많은 분과학문에서 논의된다. 그리고 이런 ‘관계적 자아’를 지닌 인간상에 따를 때, 전통적 이원론과 다르게 이기심과 이타심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선택이 곧 공동체를 위한 선택이 되는 수많은 경험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직업을 갖는 것이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한 이기심에 기반한 선택일 때, 가족을 위한 돌봄에 시간을 할당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나와 가족의 물질적 삶을 충당하기 위해 직업을 가질 때, 돌봄에 시간을 할당하는 것 역시 나와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개인의 노동은 공동체 전체의 부를 증가시킨다. 결국 선별과 변별 속에서 남보다 우위에 서야 하는 과도한 경쟁체제가 자신의 이익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상충하게 하는(김경근, 2020: 9) 직접적 원인이지만,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근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더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타심과 이기심에 대한 이원론을 해체하고, '관계적 자아'를 지닌 인간상을 논의하기 위해, 심리학의 개성화(individuation), 사회적 행동이론의 주격(I)-목적격(me) 자아 개념을 살펴보자.

심리학에서 개성화(individuation)란, 타인과 연관되면서 동시에 타인과 다르게 구별되는 개인의 자아를 포착하는 개념이다(Fordham, 1958). 이는 갓 태어난 영아가 홀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와 상호과정 속에서 자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갓 태어난 아이는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양육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탕으로 자신과 환경을 인식한다. 이후 양육자가 자신과 다른 타인임을 인식할 때, 타인과 다른 자아상을 발전시키는데, 이 자아상은 양육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던 자아상과 얽힌다. 이런 자아상은, 개인의 경제적 활동이 오로지 자기 이익 추구 행위라는 일원론적(monism) 관점을 비판하며, 타인과 구별되면서 동시에 사회에 깃든(embedded) 개인을 규정하는(Davis, 2003), 행동경제학 관점과 만난다. 이때 개인은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형성되는 특수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사회에 깃든(embedded) 존재로서 공동체의 이익이 자기 이익과 직결된다. 때문에, 이타심과 이기심은 상호작용하면서 자기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만나는 지점에서 행위를 도출하게 된다.

한편, 인간 행동을 무릎반사(knee-jerk)와 유사한 무조건 반사로 여기는, 즉 외부환경(자극)이 인간 행동(반응)을 결정하는 것으로 여겼던 왓슨(Watson)의 행동주의 이론이 드러내는 결정론을 비판하며, 미드(Mead)는 사회적 행동이론을 발전시킨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으로 알려진 미드(Mead)의 이론은, 개인과 외부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되는 행동의 결과로 사회가 구성된다는, 즉 개인의 자아와 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심리학 이론이다. 이때 상호작용은 개인이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외부환경과 대립하며 행위자의 자율성이 펼쳐지는 공간이며, 동시에 환경·타자를 자신의 내부로 들여오는 시간이다. 미드(Mead, 1967)는 타인의 관점이 나의 관점과 융합되는 과정을, “주격 나(I)”와 “목적격 나(me)”를 구분해 설명한다. “목적격 나(me)”는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감시자(censor)의 역할을 하는데(Mead, 1967: 210), 이때 “주격 나(I)”는 감시자의 관점을 포착하고 대립하고 융합하면서 행동을, 정체성을 주조한다. 이때 “목적격 나(me)”는 친밀한 개인(가족, 친구 등), 또 사회적 관습·제도·법률 등 집단화된 타자일 수 있다. 즉, 유의미한 타자(significant others)와 일반화된 타자(the generalized other) 모두를 포함한다. 그리고 타자와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적 자아’를 발달시킨 개인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따르지만 동시에 타자의 요구를 성찰하면서 이타심과 통합해 행동을 주조한다.

앞서 직업의 예를 다시 생각해보면, 아(我)와 타(他)를 이원론적으로 대립시키는 근대의 관점을 따를 때 직업을 갖는 것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획득하는 자기 이익 추구 행위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시 성역할이라는 ‘일반화된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즉 가족 부양을 남성의 역할로 규정한 일반화된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업을 갖는 선택을 한 남성의 행위는 다르게 해석된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획득하기 위한 자기 이익 추구보다는, 공동체에서 남성에게 부여한 소임을 수행하는 규범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⁷⁾ 이런 해석은 타인의 행동에 내재한 의

7) 물론 근대사회에서 직업이 개인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 기초의 원천이고, 따라서 성별분업이 남성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는 해석은 타당하다. 그러나 의도와 결과에 대해 더 정확히 이해할 때, 타인에 대해 더 공감할 수 있고, 공감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역할로 기대되는 현재,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 의미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상호 공감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듯 이기심과 이타심을 통합하는 ‘관계적 자아’의 관점은, 자신의 이익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상충하지 않는 경험을(김경근, 2020: 9) 추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정리하면, 심리학, 행동경제학, 사회심리학에서 바라보는 개인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류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인간”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기 이익이 충돌하고 균형을 찾고 공존하는 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인간이다. 즉 ‘우리’ 안에 정주(定住)하는 ‘나’로 살아가는 ‘관계적 자아’를 지닌 존재다. 사실 주류경제학의 “경제적 인간”이란 관점은 경제적 동기가 인간 행동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경제 결정론을 내포하고, 이는 인간의 다양한 동기와 욕구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일원론적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음 장에서 다윈주의 관점을 논의하고 다윈주의 관점에 따라 교육이 키워내야 하는 개인에 대해 고찰하겠다.

Ⅲ. 교육의 목적: ‘행복한 생활인’ 키우기

다윈주의는 주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정치학에서(박균성, 2006),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와 다른, 절대적 타자성에 기반하는 다름의 정치와 관련해 논의된다(심성보, 1994: 224-227). 정치적 다윈주의는, 행위자 개개인의 차이를 강조하며 개인과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이기심과 이타심의 이원론을 바탕으로 개인과 이기심을 우선하는 자유주의 정치이념에 속한다. 이와 다르게, 이 글에서 다윈주의는 행위자 개인이 다양한 사람·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즉 가치의 다원성을 의미한

다(Van Staveren, 2001). 한 사람의 행위자가 타인과 구별되는 하나의 관점을 갖고 이 관점이 공동체의 단일한 관점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행위자는 삶에서 맺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관점을 갖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 그리고 개인은 다양한 가치를 향유할 때 더 풍요롭고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즉 정치적 다원주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 행동의 의미 그 행동이 산출하는 가치 등을 초점으로 하는 앞서 논의했던 사회심리학, 행동경제학적 관점이다.

주류경제학의 일원론을 넘어, 다양한 동기, 의미 등을 포괄해 총체적으로 개인을 이해하는 관점을 논의하기 위해, 가치의 다원성을 폴라니(Polanyi)의 사회적 경제이론과 반 스타베런(Van Staveren)이 제시한 경제학에서 다양한 가치들로부터 살펴보겠다. 이는 경제학적 일원론과 같은 맥락에서 기술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교육의 변화를 논의하는(김은비 외, 2020; 이경호, 2019) 관점은, 후기 산업사회 전반적 변화를 포착하고 그에 걸맞은 변화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1. 가치 다원주의 - 자유, 정의, 돌봄

『거대한 변환』이란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사회적 경제’ 이론은, 시장경제만을 경제로 인식하는 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이다. 사회 속에 깃들여(embedded) 있던 경제가 사회로부터 이탈해 결국 사회 위에 군림하는 자본주의의 탄생을 비판하며(강수돌, 2008: 162), 경제적 인간을 진정한 인간으로, 경제적 체제를 진정한 사회로 여기는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폴라니는 원시사회 부족들 사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할당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다양한 경제활동들을 분석했다(Polanyi & Pearson, 1977: 12). 그리고 시장(market)은 교환(exchange)이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영역임을 인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논증했다(Polanyi, 2001). 폴라니(2001)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 이

외에, 호혜성(reciprocity)의 방식으로 재화와 서비스가 할당되는 공동체, 재분배(redistribution)의 방식으로 할당되는 정치(Politics) 영역을 구분한다. 폴라니의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이론은 시장만을 경제 영역으로, 교환만을 경제적 행위로, 인간을 ‘경제적 인간’으로 규정한 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이익 추구를 우선하는 교환만을 이성적인 경제활동으로 여기고, 도덕이 작동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시장’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관점에 맞설 수 있는 이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폴라니가 분석했던 공동체가 가부장제, 즉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현대 수평적 공동체 논의에서 폴라니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구은정, 2020: 145-151). 무엇보다 이 글과 관련해, 폴라니의 이론은 시장, 공동체, 정치 각 영역에서 산출되는 가치들을 다루지 않았다.

여성주의 경제학자 반 스타베런(Van Staveren, 2001)은 주류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일원론적 가치이론을 비판하며, 폴라니의 다양한 경제활동과 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영역들을 가치와 연관해 규명하며, 다원주의 가치 논의를 이끌었다. 이때 폴라니가 호혜성 영역으로 공동체를 규정했지만, 반 스타베런은 상호 동의한 계약에 따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 교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목한다(Van Staveren, 2001: 55). 그리고 여성주의 돌봄 이론과 결합해 공동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증여(선물주기, giving)로 논의한다. 또 경제학에서 다루는 가치들과 연관해, 각 영역에서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하고 향유하는 자유, 정의, 돌봄의 가치를 논의하고, 이 가치들이 통약불가능함을 밝히며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일원론(monism)을 거부한다(Van Staveren, 2001). 반 스타베런(2001)의 논의에 따를 때, 시장에서 교환이란 경제적 활동으로 획득한 물질적 가치를 소비하며 개인은 자율적·독립적 삶을 추구하고, 자존감(dignity),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자

부심(pride) 등을 경험하고, ‘자유’의 가치를 향유한다. 정치영역에서 개인은 재화와 서비스를 충분히 할당받지 못한 곳에 사회적으로 합의한 규칙·법에 따라 재분배하며, 공평함(fairness), 권리(right), 올바름(rightness), 연대(solidarity) 등의 정서를 경험하고 정의의 가치를 향유한다. 공동체 영역에서 개인은 이윤추구의 목적도, 규칙과 법이란 외적동기도 아닌, 상호 관계 속에서 나눈 애정·사랑을 기반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giving) 받으며 사회적 연결(social networks), 신뢰(trust), 책임감(responsibility) 등 정서를 경험하고 돌봄(care)의 가치를 향유한다.

교육과 관련해 가치 다원주의는,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의 목적은(양홍권, 2018: 43), 개인이 이런 다양한 가치를 인식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할 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교육 관련 논의에서 지금 논의된 세 가지 가치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돌봄 가치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지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인간’이란 인간상은 자유의 가치를, 민주주의·정치 등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정의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러나 앞서 경제적 일원론과 혼란스러운 인재상에 대해 비판했듯, 어느 한 가치를 중심으로 할 때 전인적 인간이 아니라, 이기적인 경제적 인간 또는 공동체적 영웅을 키우는 것을 교육의 역할로 오인할 수 있다.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음 절에서 교육과 관련된 논의에서 미흡했던 돌봄 가치를 보다 분명히 밝힌 후, 다양한 가치들을 개인이 일상에서 조화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이런 다양한 가치들을 향유하는 개인이 곧 교육을 통해 키워내야 할 인재라는 것을 논의한다.

2. 돌봄 가치와 돌봄 윤리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과 관련해 돌봄 가치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하다. 무엇보다, 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이라 할

때(양홍권, 2018: 43),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돌봄 가치를 향유하며 느끼는 '사랑스러운 나'로 자각하는 정체성은 개인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바탕이다. 학업능력이 뛰어나지 못해도, 때론 규칙이나 법을 어기는 비겁한 사람이라도, 그런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서로를 인정하는(구은정, 2020: 157-158) 관계 속에 정주(定住)한다면, 때때로 마주치는 삶의 고비를 넘어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돌봄에 대한 논의는, 당위적 차원에서 따라야 하는 도덕으로(조성민, 2012), 환산된 금전적 가치로(Budlender, 2008), 또는 젠더 평등과 연관해 누가 돌봄노동을 수행할 것인가(Gerson, 2002) 등 개인이 일상에서 향유하는 가치에 대한 초점에서 다소 벗어났다. 이 절에서는 돌봄에 대한 이런 기존 논의를 넘어, 돌봄 가치를 체험하는 삶 속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돌봄 윤리를 실천하게 됨을 초점으로 할 것이다. 이 초점을 바탕으로 돌봄 행위, 돌봄 가치, 돌봄 윤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사랑스러운 나'란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상에서 향유하는 가치로서의 돌봄을 고찰하겠다.

돌봄 수행은, 아픈 사람을 돌보거나 육아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따라서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고, 돌봄은 이미 관계적 가치 즉 정서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여겨진다(Himmelweit, 2007: 583; Noddings, 1984). 한편 돌봄 가치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돌봄을 수행한 시간을 측정하고, 시간당 비용을 계산하고,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다(Budlender, 2008). 이 과정에서 돌봄 행위는 자연스럽게 돌봄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모든 돌봄은 마치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히멜웨이트(Himmelweit, 2007)가 밝혔던 돌봄의 관계적 가치가 금전적으로 돌봄 가치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배제되는 역설은 조명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한 생활보호시설

에서 가족이 면회 와서 포옹할 수 있도록 ‘허그 텐트’를 운영하는 기사가 소개되었다(박종익, 2021.2.6.). 이때 가족이 면회 와서 포옹할 때와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한 돌봄노동자가 포옹할 때, 환자가 느낄 돌봄 가치가 다를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동안 형성된 관계에 따라 가족의 ‘포옹’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가치를 담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된 돌봄노동자의 ‘포옹’은 시간당 임금의 가치를 담을 뿐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돌봄 가치에 관한 연구는, 돌봄 가치를 온전히 밝히기보다 돌봄이 생산하는 비물질적 가치를 비가시화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Koo, 2021).

위 두 가지 ‘포옹’이 내포한 다른 가치는 긍정심리학에서 밝힌, 예기치 않은 선물(gift)을 받았을 때 느끼는 고마움과 고마움을 느끼며 발산되는(exude) 선물을 되돌려주려는 의지와(Fredrickson, 2009: 41-42) 연관해 해석할 수 있다. 고용된 돌봄노동자와의 포옹은 예기치 못한 선물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서비스다. 반면, 가족이 나를 안아줄 때 느끼는 사랑·염려·애정은 예기치 못한 선물이다. 비록 몸은 병들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고 염려해주는 가족의 눈빛 그리고 껴안는 팔에서 느껴지는 힘과 온기 등은, 누군가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랑받는 나를 느끼게 해준다. 이는 앞서 반 스타베런(2001)의 논의에서 공동체 영역에서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된 애정·사랑을 바탕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증여(giving)로 주고받을 때 발생하는 가치로서의 돌봄(care)을 향유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정치영역에서 규칙과 법이란 외적동기에 의해 나에게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돌봄 가치를 발현시키지 못한다.⁸⁾ 다시 말해, 돌봄 가치는 돌봄 행위 자체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돌봄

8) 돌봄이 관계적 가치이기 때문에, 관계가 지속되면서 고용된 돌봄노동자와 돌봄 수혜자 사이 돌봄 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 가령, 아이를 사랑하는 돌봄노동자가 영아를 돌볼 때, 계약과 관계없이 아이와 돌봄노동자 사이 애정이 흐르고 돌봄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고용관계를 매개하는 물질적 가치가 우선으로, 돌봄 가치 향

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발현되는 것이다(Koo, 2021). 선물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애정·사랑·연결(connectedness) 등의 긍정적 감정을 느끼며 인간은 신체적으로·정서적으로·심리적으로 건강해진다(Fredrickson, 2013). 즉, 선물로 주고받는 관계에서 발생한 연결감(connectedness)은 개인과 개인의 상호적인 관계를 재구성하고 성공적으로 유지시킨다(Ware et al., 2007).

이때 선물로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는, 고마운 마음에 받은 선물을 되돌려주고 싶은 의지의 발산이(Fredrickson, 2009: 41-42) 바로 돌봄 윤리를 자발적으로 동기화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고마움을 갚고 싶은 의지의 발산인 돌봄 윤리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즉 규칙과 원리에 의한 정당화가 요구되는 보편적 배려와(조성민, 2012) 다르다. 도덕으로서 돌봄은 여성들에게 성역할로 강제되어왔고, 이런 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성주의자들은 돌봄 윤리를 재해석했다. 세븐후이젠(Sevenhuijsen, 1991)은 사회법으로 강제되던 의무가 아니라, 맥락과 상황, 관계에 따라 도덕적 실천에 참여하는 상황윤리(situational ethics)로 돌봄 윤리를 규정한다. 이런 돌봄 윤리는 배려윤리로 우리에게 소개된 너딩스(Noddings)의 논의와(김수동, 2002) 같은 맥락이다. 즉 외적으로 강제되는 보편성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바람(want)’의 정서가 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된다(김수동, 2002: 35). 그리고 트론토(Tronto, 1987: 659-660)가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돌보지(care) 않는다.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문화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더 배려(care)한다”라고 밝혔듯, 관계는 돌봄의 핵심이다. 이처럼 배려윤리 즉 돌봄 윤리에 대한 논의는 돌봄 행위를 도출하는 것이 외적 강제가 아닌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내적동기(바람, 의지)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교육과 관련된 기존 돌봄 윤리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 글에서

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에 대한 논의는 Koo(2021: 151-153) 참조.

주목한 돌봄 가치를 향유하는 경험을 통해 그 바람·의지가 발산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지 못했다. 일상에서 향유하는 가치, 경험에 주목하기보다, 정의(윤리)와 통합해 더 완전하고 더 보편적인 도덕이론(김수동, 2002; 조성민, 2012)/정치이론(Engster, 2007; Held, 1995; Sevenhuijsen, 1998)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보편성으로서의 돌봄은 규칙과 법이란 외적동기로 치환되고, 이때 관계 속에서 향유하는 돌봄 가치는 사라지거나 축소된다. 외적동기로 제공되는 돌봄은 ‘사랑스러운 나’란 정체성을 주지 못한다. 앞서 허그텐트 사례에서, 포옹을 제공할 사람을 고용했을 때, 그 돌봄은 나를 사랑하고 배려해서가 아니라, 물질적 가치를 획득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돌봄 가치를 향유하는 경험을 주목하지 못할 때, 돌봄 윤리에 대한 교육은 외부지식을 전달하고 그 외부지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내용이 초점이 될 수 있다. 외부지식으로 전달되는 윤리는, 고마움을 느끼고 받은 선물을 되돌려주고 싶은 의지와 무관하다. 이와 달리 경험에 주목할 때, 돌봄 윤리에 대한 교육은 결국 돌봄 가치를 향유하는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고, 돌봄을 나누는 교육공동체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 글의 주제인 교육의 목적을 고려할 때, 통약불가능한 자유, 정의, 돌봄 가치를 조화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경제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지식교육, 지구공동체에서 타자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시민이 되도록 ‘정의’의 가치를 교육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리고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의 목적은(양홍권, 2018: 43) 자유와 정의의 가치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의 목적은, 이 장에서 논의한 관계 속에서 향유하는 돌봄 가치를 포함할 때 비로소 현실태로 존재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 사이, 학생들 사이, 매일의 안녕을 빌어주고, 얼굴에 스치는 그들을 살피주고, 존재 자체로 마음 한구석을 내주는, 그런 돌봄을 경험하며 타인과 세상,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배운다. 돌봄 윤리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 없는 유아들도 서로를 염

려하고 돌보는 행동과 마음을 일상에서 나눈다(염지숙·오채선, 2010). 그러나 근대 이기적 인간상을 기반으로 선별과 변별에 경도되어 학업성취 결과를 기준으로 일렬로 줄 세우는 한국 교육 현장에선(김경근, 2020: 3-7), 이런 돌봄을 나누는 것은 배제되었다. 그만큼 전인적 성장에서 멀어졌다. 4차 산업 사회에 걸맞은 추격형 인재가 아닌 선도형 인재 육성이란 교육의 목적은(김경근, 2019; 이경호, 2019) ‘사랑스러운 나’란 정체성을 주조하는 돌봄 가치의 향유를 포함하기 어렵다. 따라서 돌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4차 산업사회인 후기 근대사회, 이 절에서 논의한 돌봄 가치를 교육의 목적과 연관해 재전유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다음 절에서는, 돌봄 가치를 포함해 다양한 가치를 향유하는 ‘행복한 생활인’으로 개인을 키우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논의하겠다.

3. ‘행복한 생활인’⁹⁾- 자유인/시민/돌봄인 정체성의 조화

호네프의 인정이론에 따를 때, 개인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획득한다(Honneth, 1996). 그리고 전근대사회에서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획득했다면, 근대사회에선 타인의 인정을 획득하는 영역이 세 가지로 분화된다(Honneth, 2003). 이때 호네프(2003: 110-197)가 구분한, 개인적 성취(individual achievement), 법(law), 사랑(love)이란 세 가지 영역은 플라니와 반 스타베런의 이론에서 각각 시장, 정치, 공동체 영역과 호환된다. 즉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영역에서 개인적 성취를 이루며 능력 있는 개인으로 인정받고, 정치영역에서 규칙과 법을 수호하며 정의로운 사람이란

9) ‘생활인’은 자기 이익에 매몰된 경제적 인간과 공동체를 위한 인재로서 공적 자아를 넘어,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좀 더 정치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평에 동의하고, 이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깁니다.

명예를 얻고, 공동체 영역에서 돌봄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얻는다.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타인으로부터 획득한 인정은, ‘능력 있는 나, 명예로운 나, 또는 있는 그대로도 사랑스러운 나(the self)’인 정체성을 주조한다. 이렇게 개인은 “경제적 삶을 꾸리는 자유인으로, 돌봄과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웃으로, 더 나은 사회 틀을 짜기 위해 참여하는 시민으로(구은정, 2019b: 176-177)”, 다양한 정체성들의 조화 속에서 “행복한 생활인”으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후기 근대사회,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하는 인재는 이런 다양한 자기 정체성을 조화시키며 일상을 영위하는 “행복한 생활인”이다.

물론 이런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향유하는 “행복한 생활인”으로서의 인재상은, 학식·능력·인품이 남달리 뛰어난 사람, 미래 사회를 이끌 조직의 리더 등으로 규정되는 인재상만큼(김은비 외, 2020: 7; 이경호, 2019: 147),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향유한다는 것은, 정확히 삼분의 일만큼씩 향유한다거나 절대적 조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일들을 헤쳐 나가야 하는 삶의 과정에서, 한 영역에서 상처받거나 미흡한 정체성을 향유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보완할 수 있는, 즉 개인이 타인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구성하고 찾아가는 조화를 의미한다. 다양한 역할 속에서 개인은 긴장·갈등·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는(이재완·강혜진, 2018), 다양한 정체성을 향유하는 것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와 비교해, 학업성취 결과를 기준으로 일렬로 줄 세우는 한국 교육이(김경근, 2020: 3-7) 상정하는 정체성은 오직 능력을 기준으로 우열을 가리는 정체성이다. 때문에, 다수의 학생이 패배자로서의 정체감을 느끼게 되는 폐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최근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 자발적 가난 등 담론이 확산되는 것은, 경제 영역에서 능력 있는 자아상보다, 정치적으로 의식 있는 자아상 또

는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과 경험을 나누는 자아상에 대한 선택일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 결혼·출산의 감소는, 개인이 공동체 영역에서 돌봄을 나누는 자아상보다, 경제 영역에서 능력 있는 자아상을 선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자아상 추구는, 경제적 일원론을 바탕으로 이기적 인간상이란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근대 사회에서, 어쩌면 개인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지일 수 있다.

한편 개인이 타인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구성하고 찾아가는 조화로운 정체성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로 또는 절대적 타자성으로(심성보, 1994: 224-227) 환원되지 않는다. 생애 주기에 따라, 삶의 목표에 따라, 또는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과 합의에 따라, 개인이 주도하는 정체성 조화는 지금 여기에 현상되는 특이성(specificity)으로 발현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현상되는 특이성으로서 다양한 정체성의 조화는 ‘우리’에 깃든 ‘타자성’의 발현으로, “경제적 인간”을 또는 “국가를 위한 인재상”을 넘어서며 융합한다.

IV. 결론

이 글은 후기 근대사회 사회변화의 주된 원인의 하나인 돌봄에 대한 논의가 교육 관련 연구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 제기하며, 그동안 당연시해온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인간”이란 인간상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이바지하는 인재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전통적 서구철학에서 기인하는 이기심과 이타심을 맞서는 것으로 여기는 이원론을 비판하며, 심리학, 사회심리학 관점을 활용해 ‘우리’ 안에 정주(定住)하는 ‘나’를 인간상으로 제시했다. 다원주의 관점에서, 근대 교육의 목적은, “경제적 삶을 꾸리는 자유인으로, 돌봄과 사랑을 나누는 가족·

이웃으로, 더 나은 사회 틀을 짜기 위해 참여하는 시민으로(구은정, 2019b: 176-177)”, 자유·돌봄·정의의 가치를 향유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생활인”을 키우는 것임을 논의했다. 이때 돌봄 가치란 일상에서 돌봄을 선물(gift)로 주고받으며 향유하는 가치로,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나’라는 정체성을 주조하는 기제다. 이런 가치를 향유하며, 고마움을 느끼고 고마움을 갚으려는 의지의 발산인 돌봄 윤리를 체화하며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논의했다.

돌봄 위기에 처한 후기 근대사회를 초점으로 한 이 글은, 교육의 목적에 대한 기존 논의에 새로운 세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첫째, 새로운 인간상, 인재상, 돌봄 가치에 관한 논의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이를 진자운동하며 개인을 이기적 괴물로 여기거나 공동체를 위해 희생해야 할 도구로 여기는 오류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적으로 개인을 교육의 목적으로 규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경제적 일원론(monism)을 넘어 가치의 다원주의를 논의하는 것은, 지식교육으로 매몰되고 있는 현재 교육에 다른 이론적 논점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셋째, 다원적 가치의 조화를 제시한 것은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 맞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의 항목으로 포괄해 교육의 인식론적 관점을 넓혔다는 의의가 있다. 돌봄 가치에 대한 이 글의 논의가 그동안 교육에서 간과되고 배제되어 온 돌봄 가치의 필요성을 분명히 해, 지식교육 정치교육뿐 아니라, 돌봄을 나누는 교육과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유·돌봄·정의 가치의 조화는 절대적 가치로 행위자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타인과 관계 속에서 상호 조율하고 타협하면서 구성되는 것임을 앞서 논의했다. 이때 조화와 타협이 낭만적으로 읽힐 수 있고 따라서 현실적 타당성이 의심될 수 있다. 그렇지만, 조화와 타협으로 인식하는 것과 적대와 갈등으로 인식하는 것은 일상에서 매우

다른 실천적 범위를 강제한다. 때문에, 상호 조율하고 타협하는 맥락은, 조화로운 균형이 아니라, 타자와 갈등·견제·투쟁을 겪는 과정임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조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돌봄 가치가 공동체적 가치임을 고려할 때, 교육공동체와 관련해 풍부한 논의가 기대되지만, 이를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강도훈(2020.9.15). 최근 4년간 10대·20대 자살시도 증가율 70% 넘어-전체적으로도 자살시도자 4년간 33% 증가...우울사회 <문화저널21>. <http://www.mhj21.com/134662> (검색일 2021.9.30.)
- 강수돌(2008). “경제와 사회의 조화를 위한 대안: 1997 년 외환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161-190.
- 강정인(2012).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주의 담론: 민족과 국가의 강고한 결합에 기초한 반공, 근대화 민족주의 담론.” 『사회과학연구』, 20(2): 34-73.
- 구은정(2020). “돌봄 가치를 반영하는 개헌을 위하여: 개인의 권리와 의무로서의 돌봄.” 『경제와사회』, 127: 134-169.
- 구은정(2019a). “저출산에 대한 인식지평 확장: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에서 향유하는/할 수 있는 가치.” 『여성연구』, 100(1): 191-226.
- 구은정(2019b).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 그 이론적 함의.” 『경제와사회』, 123: 155-181.
- 김경근(2020). “변화의 시대를 맞이한 한국 고등교육의 주요 과제 및 대안.” 『교육사회학연구』, 30: 1-32.
- 김경근(2019). “변화의 시대에 한국 교육은 미래 세대를 적절히 준비시키고 있는가?.” 『교육학연구』, 57: 221-252.
- 김민수(2019). “4 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기술과 미래 어린이철학교육의 전망-시대적 인재상의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초등도덕교육』, 63: 253-285.
- 김수동(2002). “배려의 교육적 개념-Noddings 도덕교육론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22: 25-42.
- 김은비·정홍인·김대영·변기용·임철현·최지수·조대연(2020). “미래인재양성 방향 모색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 『교육문화연구』, 26(6): 5-27.
- 김은주·이상수(2005). “유아교육에서 ‘돌봄’과 ‘살림’에 대한 논의.” 『아시아교육연구』, 6(3): 183-207.
- 박균성(2006). “프랑스 행정법상 공익개념.” 『법학』, 47: 27-51.
- 박상훈(2021.4.28.). 자살률을 보라, 정치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709560002450?d=DA> (검색일 2021.8.30).
- 박수호(2020.1.10.). 2020 트렌드 ‘신용어’ 총정리-‘가성비’가라... 이제는 ‘개취’ ‘가치’ 시대 <매일경제> <https://www.mk.co.kr/economy/view/2020/32512> (검색일

2021.12.22.).

박종익(2021.2.6.) 비닐 통해 가족의 온기를... 코로나 막는 눈물의 '허그 텐트' <나우뉴스>.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06601007> (검색일 2021.4.6).

성현창(2013). "미국의 공공철학." 『철학논총』, 7:, 187-210.

소경희·박지애·이수한·허예지(2020).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에서 본 지능정보 사회를 위한 학교교육 정책 비판." 『교육학연구』, 58: 85-117.

신경아(2013). "'시장화된 개인화'와 복지 욕구 (welfare needs)." 『경제와사회』, 98: 266-303.

신현석·정용주·장아름(2019). "한국 교육의 변화와 미래의 교육: 역사적 접근을 통한 미래 교육의 전망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25(3): 47-86.

심성보(1994). "'다름의 정치와 '공동선'의 정치간의 대립과 市民教育의 방향." 『교육 정치학연구』, 1: 223-240.

양홍권(2018). "미래사회의 인재상에 대응하는 교육변혁 방향."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5-64.

염지숙·오채선(2010). "희망분교 나비 반 유아들의 '돌봄'이야기." 『유아교육연구』, 30(2): 381-403.

이경호(2019). "4 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상 분석을 통한 교육과제 탐색." 『한국교육학 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25(2): 143-166.

이선미(2008). "근대사회이론에서 공동체 의미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사회학』, 42(5): 101-139.

이영희·윤지현·홍섭근·임재일·백병부(2018). "미래교육 관련 연구 메타분석을 통한 미래교육의 방향." 『교육문화연구』, 24(5): 127-153.

이재완·강혜진(2018). "위라벨과 삶의 만족: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연구』, 22(3): 267-291.

장경주·김미숙(2019). "경험철학을 반영한 역할 토론수업에서 학생들의 사고 과정과 감정의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29(2): 267-299.

정건희(2018.1.17). 영국 '외로움 장관' 임명해 고독과의 전쟁 나선다. <국민일보> <http://news.kn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58201> (검색일 2018.1.17).

조성민(2012). "나딩스 배려윤리의 도덕교육적 의의와 한계." 『윤리철학교육』, 17: 1-26.

통계청(2021). <국민 삶의 질 2020>

- 홍찬숙(2013). “개인화와 ‘젠더사회’: 개인화 시대의 사회불평등 양상.” 『한국사회학』, 47(1): 255-276.
- Ardichvili, A., & Kuchinke, K. P.(2009).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meanings of work and working: current research and theory.”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11(2): 155-167.
- Arendt, H.(1998). *The human con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nks, M., & Milestone, K.(2011). “Individualization, gender and cultural work. *Gender”, Work & Organization*, 18(1): 73-89.
- Bracke, M. A.(2013). “Between the transnational and the local: mapping the trajectories and contexts of the wages for housework campaign in 1970s Italian feminism.” *Women's History Review*, 22(4): 625-642.
- Budlender, D.(2008) *The statistical evidence on care and non-care work across six countries*, (No.4). Geneve: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 Coleman, D. A.(2002). “Replacement migration, or why everyone is going to have to live in Korea: a fable for our times from the United Nation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7(1420): 583-598.
- Davis, J. B.(2003). *The theory of the individual in economics: Identity and value*. Routledge.
- Engster, D.(2007). *The heart of justice: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 Fredrickson, B.(2013) *Love 2.0: Creating happiness and health in moments of connection*. New York: Plume.
- Fredrickson, B.(2009). *Positivity*. New York: Three Rivers Press.
- Fordham, M.(1958). “Individuation and ego development.”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3(2): 115-130.
- Gerson, K.(2002). “Moral dilemmas, moral strategies, and the transformation of gender: Lessons from two generations of work and family change.” *Gender & Society*, 16(1): 8-28.
- Held, V.(1995). “The meshing of care and justice.” *Hypatia*, 10(2): 128-132.
- Himmelweit, S.(2007). “The prospects for caring: economic theory and policy analysi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1(4): 581-599.

- Honneth, A.(1996).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MiT Press.
- Honneth, A.(2003). "Redistribution as recognition: A response to Nancy Fraser." In Fraser, N., & Honneth, A.,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pp.110-197). Verso.
- Jaquette, J. S.(1982). "Women and modernization theory: A decade of feminist criticism." *World Politics*, 34(2): 267-284.
- Koo, E.(2021), "Pluralistic insight on care value: exuding from sharing gift of unpaid work at home." *Gender, Work & Organization*, 28(4): 1413-1425.
- Koo, E.(2019). "Women's subordination in Confucian culture: Shifting breadwinner practices."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5(3): 417-436.
- Larry, B., Marcia, H., Judy, H., & Naomi, S.(1973). "Altruism and women's oppression." In *The Philosophical Forum*, 5: 222-247.
- Mead, G. H.(1967). *Mind, self &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W. Morris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oddings, N.(1984). "An Ethic of Caring" In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pp. 79-10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arreñas, R.(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University Press.
- Polanyi, K.(2001). *The Great Transformation*. New York: Rinehart.
- Polanyi, K.(1977). *Livelihood of Man*. (H. W. Pearson, Edit.). Academic Press.
- Ryu, S., & Kim, J.(2019). "Gender differences in contribution to domestic work associated with outsourcing in Korea." *Consumer Interests Annu*, 65(9): 1-9.
- Secombe, W.(1974). "The housewife and her labor under capitalism." *New Left Review*, 83: 3-24.
- Sevenhuijsen, S.(1998). *Citizenship and the ethics of care: Feminist considerations on justice, morality and politics*. Abingdon-on-Thames: Routledge.
- Sevenhuijsen, S.(1991). "The morality of feminism." *Hypatia*, 173-191.
- Smith, A. (2003). 『국부론』, 김수행 (역). 서울:비봉출판사; *The Wealth of Nations*, London: Methuen, 1776.
- Taylor, C.(1989).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Tronto, J. C.(1987). "Beyond gender difference to a theory of care."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12(4): 644-663.

Van Staveren, I.(2001). *The Values of Economics: An Aristotelian Perspective*.
Routledge.

Ware, N.C., Hopper, K., Tugenberg, T., Dickey, B., & Fisher, D.(2007) "Connectedness
and citizenship: Redefining social integration." *Psychiatric Services*, 58(4):
469-474.

Abstract

An educational aim in post-modern society
by a pluralistic insight

Eunjung Koo

(Dongguk University-Seoul)

This study criticizes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and their goal of fostering talented people in response to the technological chang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pecifically, the criticism draws attention to two points. First, there is no discussion on 'care' which is one of the main source of social change in post-modern society. Second, it takes on an instrumentalism perspective of education which reduces learners to mere resources for maintaining and developing the society. Thus, by integrating the discussion on care with the aim of education, this is a preliminary study that divert away from the instrumentalism perspective and instead, shifts the aim towards developing an education for individuals' everyday life. To do so, this study goes beyond the economic conceptualization of individuals as those that are only engaged in serving their self-interest, which is rooted in the dualism of the traditional Western philosophy. Instead, individuals are viewed through the lens of social psychology, thus 'the self' that lies within 'us', 'relational self', is discussed. Second, through employing a pluralistic insight rather than an economic monism,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im of education in post-modern society is to foster 'a happy person' enjoying diverse self-concepts in balance - "a free man managing their economic life, a neighbor and a family member by sharing care and love, and a citizen participating in implementing good policies and social systems". Lastly, this study argues for the shift in the education of the care ethics from being part of moral education towards care value that lets students enjoy care value in their daily lives.

Key Words: an educational aim, care value, relational self, a happy person,
pluralism

논문신청일: 2021.10.25.

논문심사일: 2021.12.13.

게재확정일: 2021.12.22.